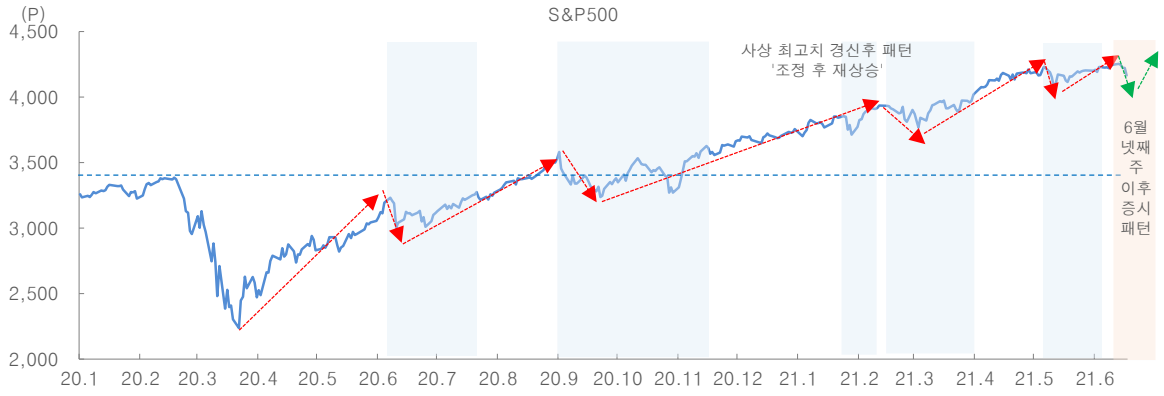
Global Strategy

변동성을 즐겨라. 성장주 담는 좋은 기회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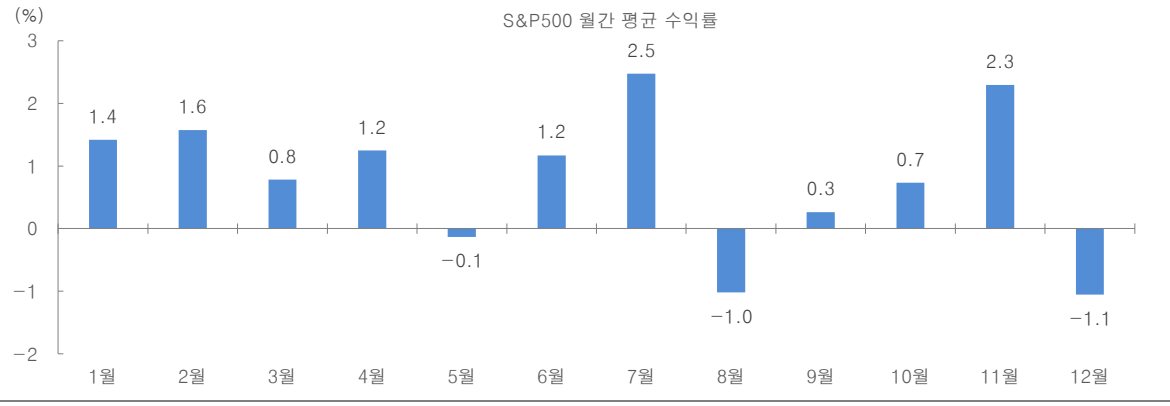
- 6월 FOMC의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다. 18일 미국 증시(S&P500, 나스닥, 다우존스산업)는 각각 -1.3%, -0.9%, -1.6% 하락해, 긴축에 시동을 건 연준 행보의 파장이 뒤늦게 반영되는 양상이다.
- 이번 6월 FOMC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컸던 만큼, 6월 FOMC 끝난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6월 FOMC 결과와 달리 첫 금리인상이 2022년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분명 귀 기울일 만한 대목이다.
- 하지만 올해 FOMC에서 표결권이 없는 연준 위원이기에 사견이 더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캐쥬얼한 대중 매체와의 인터뷰 그리고 첫 금리인상 시기가 2022년 말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인 2023년과 거의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2023년으로 번복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확대해석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6월 넷째주는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대기 중인 만큼 6월 FOMC의 후폭풍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1일 뉴욕 연은 총재, 22일 연준 의장,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6월 넷째주는 6월 FOMC 영향권 안에서 증시의 출렁거림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를 준비하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6월 FOMC 개최 시기는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기에 열렸던 만큼,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동안 두리뭉실했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가 명확해 졌다는 점은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6월 FOMC가 가져온 파장은 단기로 제한될 것이다.
- 1) 2020년 3월 이후 미국 증시 패턴을 살펴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단기간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 하는 패턴이었던 만큼, 이번 변동성 국면은 재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2) 코로나19 발생 이전 5년 동안(2015~2019년) S&P500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5월, 6월, 7월 증시는 각각 -0.1%, 1.2%, 2.5% 였다. 5월 증시 조정 후 6월과 7월 상승장이 이어진 만큼, 올해 미국 증시 흐름과 거의 흡사해 6월 넷째주 변동성 확대를 매수로 대응해야하는 과거 사례가 되어 준다.
- 하반기를 염두에 둔다면 현 시점에서 성장주를 공략해야 한다. 올해 1분기, 물가와 금리를 올렸던 배경인 백신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올라선 지표 레벨을 감안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 하반기,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로 낮아질 물가, 2) 코로나19 이전(20.1~2월 3.5%)으로 회귀 못한 미국 실업률(21.5월 5.8%), 3) 드라이빙 시즌동안 미국 저축률 상승 가능성, 4)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성장주 선호를 높이는 투자환경으로 6월 적극적으로 주식, 성장주(IT, 헬스케어, 신재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나타나는 '조정후 재상승' 패턴. 변동성을 즐겨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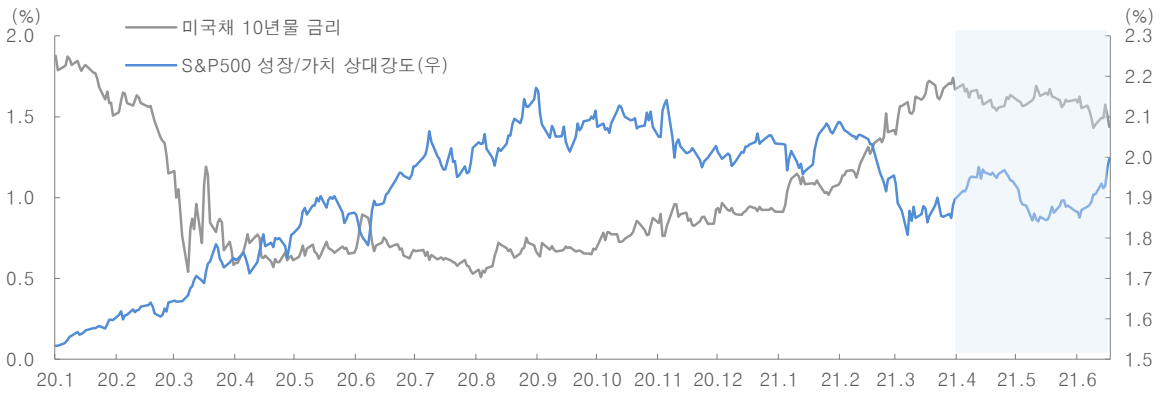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과거(2015~2019 년) S&P500 월별 수익률 고려시, 6~7 월 장세는 상승장. 변동성은 좋은 투자 기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올해 2 분기 진입 이후 성장주 상대강도가 가치주를 압도하기 시작. 현 시점은 성장주 비중확대 필요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